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 SIN: 신조선가 지수 125p, 중고선가 지수 89p

Clarksons에 따르면, 신조선가 지수는 125p, 중고선가 지수는 89p로 전주와 동일함. 지난 주 대우조선해양이 ADNOC로부터 VLCC 3+3척을 수주했고 인도기한은 2023년까지로 알려짐. 삼성중공업은 17.4만CBM급 LNG선 1+3척을 수주(2023년 인도)했고, Unisea Shipping으로부터 15.6만DWT급 탱커 옵션분 1척을 확정계약(2022년 인도)했음. 현대미포조선은 Evalend Shipping로부터 4만CBM급 LPG선 2척을 수주했고 인도기한은 2022년까지로 알려짐. (Clarksons)

## 대우조선해양, 탱커 4척 수주 전망

대우조선해양이 곧 아프라막스 탱커 4+4척을 수주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. 이미 VLCC 3+3척을 발주한 Adnoc(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)로부터 건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짐. 참고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말까지 Hapag-Lloyd와 울트라라지 컨테이너선 6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이라고 알려짐. (선박뉴스)

## 내년 VLGC 시황 호조

4분기 VLGC spot 운임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. 선대의 비효율성, 파나마 운하와 인도 및 중국 항만의 체선 현상 등 물류 상의 문제가 운임을 상승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도됨. 약 70척이 드라이도킹에 들어가고 약 21척의 노후선이 해체장으로 갈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 동성화인텍, ABS와 수소탱크 공동 개발

동성화인텍이 미국선급(ABS)과 수소연료탱크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보도됨. 2021년 2월까지 기본승인(AIP)을 받을 계획이라고 보도됨. 동성화인텍은 탱크설계/해석, 열전달 해석 등을 수행하며 ABS 선급은 설계, 해석 기술에 대해 검토, 승인을 맡게 된다고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 Adnoc's giant sour gas project set for further delays

Adnoc(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)의 수십억달러규모 Hail & Ghasha offshore sour gas 개발 프로젝트가 추가 지연됐다고 보도됨. 관계자에 따르면 Adnoc은 프로젝트의 비용절감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며 4개의 핵심 EPC공사에 대한 가격입찰 기한을 연장했다고 보도됨. (Upstream)

## 한진중공업, Keppel로부터 355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

한진중공업이 해양플랜트 용접 결함과 관련해 싱가포르 조선사 Keppel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됨. 청구금액은 355억 1,698만원으로 올해 3분기 말 자기 자본 대비 8.53%에 해당한다고 알려짐. 이번 소송은 2013년 1월 Keppel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반잠수식 수용시설의 하부구조물(Hull)에 대한 용접 결함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보도됨. (선박뉴스)